

야 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내란종식·헌정수호 위해 윤석열을 파면하라!

대한민국이 자유와 독립, 국가 존속의 가치를 되새기는 3.1절,
우리는 또 하나의 가치를 지키고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내란종식과 헌정 수호!! 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에도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와 권력 남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야5당 공동 범국민 대회를 함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 민주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이끌어왔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언론 탄압, 야당 탄압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반복해왔습니다. 또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며,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12.3 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든 현대판 군사 쿠데타이자, 독재 권력의 최후 발악으로 이는 헌정 파괴, 군사 독재 부활, 국가 전복을 시도한 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민을 기만한 역사적 범죄입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유는 어떻습니까

실체가 없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짓말과 궤변은 스스로 궁지로 몰고 있으며 야당과 시민단체의 퇴진 촉구 집회 참여를 두고, 이를 "북한의 지령"으로 규정해 모든 국민을 종북세력으로 만들어 버린 그의 망상은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더 명확해졌으며,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헌법 유린 행위로 대한민국을 퇴행시키려는 정권의 무모한 폭주라는 것이 만천하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는 3.1절을 맞아 기미년 만세를 부른 선조들의 마음으로,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을 비롯한 야5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헌정 파괴를 막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